

2021년 3월 7일  
금문교회 주일예배 GGPC Sunday Worship  
조은석 목사 Rev. Eun Suk Cho, Pastor

십자가 못 박히심 Jesus' Crucifixion  
마가복음 Mark 15:16-32

16.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And the soldiers led him away inside the place (that is, the governor's headquarters), and they called together the whole battalion.

17.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And they clothed him in a purple cloak, and twisting together a crown of thorns, they put it on him.

18.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And they began to salute him, "Hail, King of the Jews!"

19.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And they were striking his head with a reed and spitting on him and kneeling down in homage to him.

20. 희롱을 다 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And when they had mocked him, they stripped him of the purple cloak and put his own clothes on him. And they led him out to crucify him.

21. 마침 알렉산더와 루퍼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And they compelled a passerby, Simon of Cyrene, who was coming in from the country, the father of Alexander and Rufus, to carry his cross.

22.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And they brought him to the place called Golgotha (which means Place of a Skull).

23.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And they offered him wine mixed with myrrh, but he did not take it.

24.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새, "누가 어느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And they crucified him and divided his garments among them, casting lots for them, to decide what each should take.

25. 때가 제삼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받으니라.  
And it was the third hour when they crucified him.

26.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And the inscription of the charge against him read, "The King of the Jews."

27.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And with him they crucified two robbers, one on his right and one on his left.

28. (없음.) 불법한 자와 함께 인정함을 받았다 한 성경이 응하였느니라. The Scripture was fulfilled that says, "He was numbered with the transgressors."

29.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And those who passed by derided him, wagging their heads and saying, "Aha! You who would destroy the temple and rebuild it in three days,

30.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Save yourself, and come down from the cross!

31.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So also the chief priests with the scribes mocked him to one another, saying, "He

saved others. He cannot save himself.

32.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Let the Christ, the King of Israel, come down now from the cross that we may see and believe.” Those who were crucified with him also reviled him.

오늘은 3.1절 102주년 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한반도의 독립을 천하만국에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교회는 한반도의 평화로운 통일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는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한 주체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것은 죄인을 용서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은 물론 배고픈 자를 먹이시고, 갇힌 자를 풀어 해방하시며, 슬픈 자를 위로하신 우리 주님의 목회사역에서 배운 것입니다.

로마서 5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죽을 우리가 살아난 것, 이것을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이 구원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Indeed, under the law, almost everything is purified with blood. And without the shedding of blood, there is no forgiveness of sins.

히브리서 Hebrews 9:22

예수님의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죄를 사함 받았습시다! 이것은 구원입니다. 다른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이로써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And there is salvation in no one else. For there is no other name under heaven given among men by which we must be saved.

사도행전 Acts 4:12

우리는 죄악으로써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But the serpent said to the woman: “You will not surely die. For God knows that when you eat of it your eyes will be opened, and you will be like God, knowing good and evil.

창세기 Genesis 3:4-5

이런 유혹에 빠져 하나님을 대항하고 나선 우리였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두려울 진저!

It is fearful thing to fall into the hands of the living God!

히브리서 Hebrews 10:31

하나님의 손에 마땅히 죽어야 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For if while we were enemies we were reconciled to God by the death of his Son, much more, now that we are reconciled, shall we be saved by his life.

로마서 Romans 5:10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 사건을 깊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과거 2천년 전의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늘도 영원히” 이어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Jesus Christ is the same, yesterday, and today, and forever.

히브리서 Hebrews 13:8

오늘 말씀을 묵상합니다.

**16.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And the soldiers led him away inside the place (that is, the governor's headquarters), and they called together the whole battalion.**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군인들에게 이끌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신 것입니다.

**17.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And they clothed him in a purple cloak, and twisting together a crown of thorns, they put it on him.**

자색 옷은 왕의 상징입니다.

특히 자색옷은 “진홍벌레”(crimson worm)의 피로써 나는 물감으로 들인 것입니다. 이 벌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대변한 것입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But I am a worm and not a man. Scorned by mankind, and despised by the people.

시편 Psalm 22:6

여기서 “벌레”는 보통명사가 아닙니다. 이 벌레는 “특정한 어떤 벌레”입니다. 곧 “진홍벌레”(Crimson Worm)입니다. 진홍벌레를 잡아 문질러 그 피로써 옷감에 물을 진홍 물을 들이는 것입니다.

가시관은 왕의 면류관입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의복”과 “면류관”을 갖추어 드린 것입니다. 물론 희롱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렸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도, 조롱을 통해서도!

18.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And they began to salute him, “Hail, King of the Jews!”

조롱하며 “경배”했습니다.

아십니까? 예수님은 마땅히 경배 받으실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십니다.

19.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And they were striking his head with a reed and spitting on him and kneeling down in homage to him.

그들이 희롱하면서 예수님의 손에 들려주었다가 빼앗은 “갈대”는 왕의 홀의 상징이었습니다. 이로써 주님께서 왕이심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머리를 쳤습니다. 최대의 모욕입니다.

침을 뱉었습니다.

그리고 꿇어 절했습니다. 진정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으로써!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Therefore God has highly exalted him and bestowed on him the name that is above every name, so that at the name of Jesus every knee should bow, in heaven and on earth and under the earth, and every tongue confess that Jesus Christ is Lord, to the glory of God the Father.  
빌립보서 Philippians 2:9-11

20. 희롱을 다 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And when they had mocked him, they stripped him of the purple cloak and put his own clothes on him. And they led him out to crucify him.

희롱을 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가신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옷을 도로 입혀드렸습니다. 그리고 끌고 나갔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하여.

21.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And they compelled a passerby, Simon of Cyrene, who was coming in from the

country, the father of Alexander and Rufus, to carry his cross.

구레네 시몬. 이 사람이 억지로 붙들렸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져줍니다.

이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들 중 “루포”가 로마서 16장에 등장합니다. 그의 어머니, 곧 시몬의 아내와 함께.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Greet Rufus, chosen in the Lord. Also his mother, who has been a mother to me as well.

로마서 Romans 16:13

한 사람이 억지로 십자가를 져줍니다. 그런데 그는 가족을 구원하는 기초가 되었고, 교회가 되었습니다. 핍박이 가장 심했던 로마에서 사역하는 귀한 성도가 되었습니다.

**22.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And they brought him to the place called Golgotha (which means Place of a Skull).**

골고다에 이르렀습니다. 성 밖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So Jesus also suffered outside the gate in order to sanctify the people through his own blood.

히브리서 Hebrews 13:12

**23.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And they offered him wine mixed with myrrh, but he did not take it.**

몰약을 탄 포도주. 이는 진통제였습니다. 주님께서 거절하셨습니다. 모든 고통을 그대로 다 받으신 것입니다.

**24.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새, “누가 어느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And they crucified him and divided his garments among them, casting lots for them, to decide what each should take.**

군병들이 제비를 뽑아 예수님의 옷을 나누었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응한 것입니다.

내 겹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뽑나이다.

They divide my garments among them. And for my clothing they cast lots.

시편 Psalm 22:18

**25. 때가 제삼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And it was the third hour when they crucified him.**

제3시, 오늘의 오전 9시입니다.

26.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And the inscription of the charge against him read, “The King of the Jews.”

과연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27.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And with him they crucified two robbers, one on his right and one on his left.

두 명의 강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28. (없음.) 불법한 자와 함께 인정함을 받았다 한 성경이 응하였느니라.

The Scripture was fulfilled that says, “He was numbered with the transgressors.”

어떤 사본에 있는 말씀입니다. “불법한 자와 함께 인정함을 받았다”는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두 명의 강도들과 함께 나란히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이사야 53장 말씀의 성취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Therefore I will divide him a portion with the many, and he shall divide the spoil with the strong, because he poured out his soul to death and was numbered with the transgressors. Yet he bore the sin of many, and makes intercession for the transgressors.

이사야 Isaiah 53:12

29.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And those who passed by derided him, wagging their heads and saying, “Aha! You who would destroy the temple and rebuild it in three days,

이들의 모욕은 십자가 위에서도 계속되었습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거짓증언을 여기서도 계속했습니다.

30.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Save yourself, and come down from the cross!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 요구는 사탄이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했던 것과 상통합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아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And the tempter came and said to him, “If you are the Son of God, command these stones to become loaves of bread.”

마태복음 Matthew 4:3

이것은 “돌로써 당신의 죽음을 대신하라!”는 요구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의 속죄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사탄은 인생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것이 그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사는 인생입니다.

예수님 당신께서도 그 말씀을 순조하심으로써 사역을 완수하셨습니다.

**31.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So also the chief priests with the scribes mocked him to one another, saying, “He saved others. He cannot save himself.**

이들이 모른 것입니다. 다 아는 것처럼 주장하지만.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 그것은 “비밀”이 되었습니다.

**32.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Let the Christ, the King of Israel, come down now from the cross that we may see and believe.” Those who were crucified with him also reviled him.**

예수님께서 힘이 없으셔서 붙들리고, 약하여 십자가를 지신 줄 안 것입니다. 오해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있으셨으나,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순종하신 것입니다.

더구나 사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심으로써 믿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 보십시오.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들 대제사장들이 서기관들과 함께 그 “무지”를 공유했습니다. 곧 그들은 알지 못한 것을 조롱한 것입니다

확실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무지로써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For the word of the Cross is folly to those who are perishing, but to us who are being saved it is the power of God.

고린도전서 1 Corinthians 1:18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십자가 앞에 서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 하옵소서.  
Jesus, keep me near the Cross. There a precious fountain.  
Free to all a healing stream. Flows from Calvary's mountain.  
In the Cross, in the Cross, Be my glory forever.  
Till my raptured soul shall find. Rest beyond the river. Amen.  
찬송가 439장

교회가 교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을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인간들을 영원히 살리셨습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를 “단번에 영원히” 드리신 제사입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를 때, 이 세상의 모든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102년 전에 잃어버린 나라를 찾기 위하여 말씀을 들고 일어났던 한국교회가 오늘도 다시 일어서서 평화로운 한반도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분단된 나라가 하나 되는 것은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Behold! How good and pleasant it is when brothers dwell in unity!  
시편 Psalm 133:1

이 말씀은 성전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형제자매들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것입니다. 북한과 남한의 형제와 자매들이 한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아름다움. 그것은 통일한반도와 함께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기도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그 피로써 구속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영생의 길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